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두려워하라

성경말씀: 마13:47-52

2019년이 시작되면서 첫 주에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다. 많은 경우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 전하기도 어렵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듣기 싫어할까 봐 피하면 사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이가 잘못된 길, 그대로 두면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 사역 3년 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 사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 좋은 말만 하셨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옥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비유를 하시고 또 하시며 지옥에 대해 말씀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경고하신 것대로 성도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두려워하라>

현시대 가르침은 지옥 부인

예수님 당시 사두대인들, 제사장 계급의 종교인, 영, 천사, 사후 세계 부인, 현시대 사두개인들이도 마찬가지로 부인 못하는 것: 죄와 사망, 가장 크게 부인하는 것: 지옥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하시며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개개인의 몫, 나는 성경과 하나님을 믿기로 함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 사람을 둘 수 없다. 안식교 영혼 멸절, 기독교의 교황 존 스토트 지옥 부인(성공회 기독교 복음주의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는 현실, 1992년 6월 15일 존 파이퍼, 스토트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

신약성경의 가르침

신약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침례자 요한 등장,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선포(마3:11-12)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5:22, 마5:29

넓은 길과 좁은 길(마7:13),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마10:27-28), 대단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 31-46 양과 염소 심판, 영존하는 불(41)

영원한 불과 영존하는 불, everlasting, 계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계14:9-11; 계19:20), 천년왕국, 마귀가 붙잡힘(20:10), 크고 흰 왕좌 심판 20:13-15

결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교리: 지옥

왜 많이 나올까? 듣고 정신을 차리고 피하라고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됨(마25:41). 누구 만들었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분의 말씀들이 다 비유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 진리를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이 나온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왕국 제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하자 재림의 때까지 신비의 형태로 흘러가는 하늘의 왕국 묘사 많은 분들이 이 안의 여러 비유를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풀어낸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된다.

기가 막힌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기교에 빠져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마음 받이 좋아야 한다.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23).

2. 알곡과 가라지 비유

초림과 재림 사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 둘 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으니 세상 끝까지 그대로 두라(29).

세상 끝에 심판하겠다. 비유 설명(37-43).

가라지들의 심판, 결국 불타는 용광로 지옥 속에 들어간다(42).

3. 그물 비유: 물고기를 모은 그물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방법 3가지 1. 낚시로 한 마리씩 잡는 것, 2. 동그랗게 생긴 그물을 던져서 그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것, 3. 무지 큰 그물을 만든 뒤, 바닷가에 한 쪽을 고정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다시 육지로 오면 그 안에 무수한 물고기가 잡힌다. 47-48절의 그물은 이런 그물이다.

예수님의 설명(49-50), 즉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 분리, 악인은 불타는 용광로 지옥 주님의 최종 확인(51), 나도 오늘 묻는다. 여러분은 깨달았는가?

지옥은 두려운 곳이다.

1. 불타는 용광로(5): 말 그대로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곳이다. 무서운 곳이다. 막9:43-49 어떻게 몸이 영원히 타는가? 믿는 자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 불멸, 부활할 때 영존하는 몸, 천년왕국이 끝난 뒤 둘째 사망으로 갈 때 영존하는 몸 수여,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다(눅16).

2. 너무 힘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통곡하며 이를 간다(42, 50), 지옥과 관련해서 모두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7번, 마8:12; 13:42; 13:50; 22:13; 24:51; 25:30, 눅13:28). 이 말은 고통을 뜻하기도 하고 조금 더 살펴보면 분노와 좌절감을 뜻한다. 벗어날 수가 없다.

3.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막9:44,46,48; 사66:24). 여러 가지 해석 원래 지옥 불, 계헨나 지옥, '힌놈의 골짜기', 시체를 태우는 곳, 항상 불이 타오른다. 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구더기들이 삶을 파먹는다. 그런데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 그런 벌레들 역시 영원히 달라붙어 파먹는다. 불도 영원히, 벌레도 영원히

4. 지옥은 또한 바깥 어두운 곳이다(마8:12; 22:13; 25:30). 어떤 분들의 의견: 영원히 불타는데 어떻게 영원한 어둠이 있는가? 칠후같이 어두운 데(유1:11-13) 미국 창조 과학회, <https://www.icr.org/article/564> 우주 공간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다. 망원경으로는 겨우 5000개를 볼 수 있다. 우주 공간의 에너지와 질량, 별들의 것은 겨우 4%,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30%. 나머지 66%는 무엇인가?(암흑 에너지)

우주가 팽창한다. 팽창하는 바깥 부분은 완전히 어둠 그 자체이다. 바로 거기에 엄청나게 높은 온도(1000만도)로 물질이 타면 말 그대로 어둠 그 자체이다. 대표적인 것이 블랙홀이다. 별이 폭발한 뒤에 질량은 그대로 보존한 채 크기만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때 수축의 정도가 심해지면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가 되며,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포함하여 근처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게 된다. 어떤 것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블랙홀로 불리기 전에는 '얼어붙은 별', '붕괴한 별' 등의 이상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결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경고의 결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마10:28). 그분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만든 분의 처방대로 하면 된다(요3:16). 그 처방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오직 그분만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쉽지 않다. 어느 면에서 너무 쉬워서, 내 공로가 없으니까? 철저한 회개,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는 분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누구를 붙잡고 가르쳐달라고 해야 한다. 오늘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 정죄를 피해야 한다.